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의 재현과 군사주의

– 드라마 <송곳>을 중심으로

배상미*

<차례>

1. 들어가며
2. 군대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노조 조직자의 성격
3. 군대 일화에 비유되어 재현되는 노동자-회사, 노동자-노동자 갈등
4.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의 재현 경향과 <송곳>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드라마 <송곳>의 재현전략인 군사주의가 노동운동의 재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군사주의는 한국에서 성차별적 시민권을 구축해온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 논의되어왔다. <송곳>이 군사주의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여성 노동자 투쟁인 2003년에 발생한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을 재현했다는 것은 모순적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송곳>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군사주의가 활용되는 방식을 중간 관리자로서 하급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운동에 뛰어난 특이한 전력의 노조 조직자를 설명하는 과정과, 노동자들과 사측의 갈등을 군대 일화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같은 재현방식은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는 군대와 계급적 이익에 입각하여 발생하는 노동운동의 차이를 뒤섞고, 한국에 만연한 군대 문화를 그대로 승인하는 효과를 낳았다. 반면, <송곳>처럼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을 소재로 다룬 영상 재현물들은 이 투쟁을 투쟁지도자가 아닌 여성 노동자들도 투쟁의 공동 주체로서 드러내고, 노동자들의 발언에 주목하여 노동과 노동운동 분석에 젠더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밝혀내었다. <송곳>의 노동운동 재현 방식은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을 다룬 재현물들이 달성한 노동 및 노동운동 안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주제어: 송곳, 군사주의, 노동운동, 여성 노동자, 대형마트

* 선문대학교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드라마 <송곳>에 나타난 노동운동의 군사주의적 재현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송곳>의 재현이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 재현물로서 가지는 의미를 논하겠다.

드라마 <송곳>은 JTBC에서 201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12부작으로 방영되었다. 이 드라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8월 6일까지 5부에 걸쳐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았다. 웹툰과 동명의 드라마 <송곳>은 한국에서 2003년에 발생한 대형마트 한국까르푸¹⁾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직 과정 및 파업 투쟁을 주인공 이수인의 시각으로 재현하였다. 이수인은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았는데, 그 인물은 까르푸 노동조합과 홈에버 노동조합(이랜드 일반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김경욱이다. 김경욱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고 까르푸에 대졸 관리직으로 입사하였다. 그는 2003년 까르푸 투쟁 당시 까르푸 중동점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조를 만들고, 나아가 노조 위원장이 되어 까르푸가 홈에버로 인수 합병될 당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합의도 받아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7년 이랜드-뉴코아 파업투쟁 당시에도 이 투쟁을 선두에서 지휘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송곳>의 주인공인 이수인의 모델인 김경욱이 개입한 두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은 한국에서 실제 발생한 노조 단위의 투쟁으로는 이례적으로 영화, 드라마, 웹툰, 인터뷰집이라는 각기 다른 네 가지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매체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도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²⁾ 다양한 매체들이 이 투쟁을 재현했을 만큼, 이 투쟁은 한국의 노동

1) 한국까르푸는 2006년에 이랜드 리테일 주식회사에 인수되어 홈에버로 명칭을 바꾸었고, 홈에버는 2009년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의해 인수되어 홈플러스로 개칭되었다.

2) 2000년대 대형마트 여성노동자 투쟁을 다룬 재현물은 총 9개로, 영화<위로공단>(임

운동사에서나 대중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이 투쟁의 가장 최근 재현물인 웹툰과 동명의 드라마 <송곳>을 제외하고, 다른 재현물들은 노조 위원장이 아닌 투쟁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조합원들을 재현의 초점으로 삼았다.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의 재현이 여성 조합원에서 남성 지도자로 옮겨가면서 재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논문은 이 같은 질문과 함께 시작한다.

이 논문은 웹툰이 아닌 드라마 <송곳>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드라마 <송곳>은 웹툰을 원작으로 삼고 웹툰의 서사와 매우 흡사하지만 둘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다. 웹툰 <송곳>은 3부까지는 푸르미 마트의 사건을 주로 다루고 45부는 푸르미 마트와 관련된 서사뿐만 아니라 푸르미 마트의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들의 서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드라마 <송곳>은 노조 조직자 이수인을 중심으로 푸르미 마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드라마 <송곳>은 제작 당시 <송곳>의 전체 연재분 시놉시스를 작가로부터 미리 받아서 전체 웹툰의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드라마를 제작하기는 했으나,³⁾ 드라마의 회차, 취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4~5부의 상당부분을 생략하였다. 또한 웹툰과 드라마는 서로 다른 미디어로 분류되므로, 서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차이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

홍순, 2014), <카트>(부지영, 2014), <효순씨, 윤경씨 노동자로 만나다>(김태일, 2009), <외박>(김미례, 2009), <평촌의 언니들>(임춘민, 2009), 드라마<송곳>(김석운, 2015)), 웹툰<송곳>(최규석, 2013~2017)), 그리고 인터뷰/수기집(『여자, 노동을 말하다: 우리 시대 여성 노동자 8인의 이야기』(박수정, 이학사, 2013), 『나, 여성노동자』 1-2(유경순 편, 그린비, 2011),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권성현·김순찬·진재연 편, 후마니타스, 2008)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재현물들은 상업적 플랫폼을 활용한 재현물(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웹툰 <송곳>)과 제작자의 자율성을 살린 플랫폼(<효순씨 윤경씨 노동자로 만나다>, <외박>, <평촌의 언니들>), 그리고 투쟁의 기록과 학술적 연구의 목적이 결합된 간행물(『여자, 노동을 말하다: 우리 시대 여성 노동자 8인의 이야기』, 『나, 여성노동자』(2011),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2008))이 있다.

3) 김영숙, 「[인터뷰] 웹툰 <송곳>의 만화가 최규석: 노골리스트 최규석 “주제는 이마에 붙여야”」, 『오마이뉴스』, 2015.07.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1513, 2018.04.30. 검색)

로 별개의 작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드라마 <송곳>은 방영 당시 최초로 노동운동을 재현한 대중적 영상 재현물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영미⁴⁾는 <송곳>을 2010년대 드라마의 빈부격차 재현경향, JTBC라는 플랫폼, 유사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 <미생>과 영화 <카트>와의 비교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송곳>이 일상에서도 지속되는 사측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 드라마를 현실을 직시했다는 측면에서 고평함으로서 재현물로서 <송곳>이 가진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김원⁵⁾은 <송곳>이라는 드라마의 서사에 주목하기보다 계층 이동이 매우 어려워진 2010년대 한국의 세대갈등과 점차 심화되어가는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및 빈곤, 그리고 양산되는 혐오를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아닌 다른 일을 기획할 ‘시간과 연대가 필요하며, <송곳>은 그 연대를 보여준 드라마라고 평가한다. 이 글은 드라마 <송곳>이 종영되기 전에 발표된 글로, 제목과는 달리 드라마의 서사나 구조를 언급하지 않고, <송곳>을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송곳>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태보라최민음⁶⁾의 글은 <송곳>이 회사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한편, 성역할과 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양가적인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롤랑 바르트의 이론을 차용하여 <송곳>의 전체적인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송곳>의 서사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내어, 다른 연구들은 언급하지 않았던 <송곳>의 양가적인 측면을

4) 이영미, 「<송곳>, 헬조선에서의 싸움을 대하는 태도」, 『황해문화』 90호, 2016, 297~304면.

5) 김원, 「<미생>에서 <송곳>으로: 세대 전쟁에서 시간 전쟁으로」, 『실천문학』 120호, 2015.11, 73~85면.

6) 태보라최민음, 「드라마 <송곳>의 기호학적 분석: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6호, 2016, 54~62면.

부각시켰다.

태보라와 최민음이 언급하였듯이, <송곳>은 한편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텍스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태보라와 최민음의 연구가 지적한대로, <송곳>은 “주인공 이수인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행동과 일반 직원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의 대조”⁷⁾를 이룬다. 노동운동 조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임하는 이와 같은 구도는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 투쟁의 시발점이 매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회사 측의 계략이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재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투쟁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에 임하는 사람은 관리자 이수인이고, 사측의 조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매장 실무자들은 오히려 노조 가입과 탈퇴를 번복한다. 또한, 이 드라마가 사회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취지를 가진 노동운동의 과정을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비유하여 재현하는 전략을 차용한다는 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의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재현물들이 채택한 서사 구성 전략과 다른 방식의 전략을 취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이 특징은 노동운동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 투쟁을 그리면서도 한국의 가부장적 보수주의를 지탱해온 한 축인 군사주의⁸⁾를 재생산하는 모순을 빚어내고 있으므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군대는 대중문화에서도 오락거리로 자주 등장할 만큼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이다.⁹⁾ 이렇듯 일상적으로 군대와 관련된 콘텐츠를

7) 태보라 최민음, 앞의 글, 57면.

8) 군사주의는 전사회적인 군사화와 문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단순히 군대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수준을 넘어, 군대와 사회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군대와 사회가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권인숙, 「군사주의 문화의 성별화된 실제와 과제」, 『여성가족생활연구』 8호,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 연구소, 2004, 17~20면)

접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큰 저항 없이 징병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⁰⁾ 그러나 한국에서 군대는 정치적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의 기반이었고 문화적으로는 남성주의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토대의 역할을 해 온 만큼,¹¹⁾ <송곳>이 군대의 은유를 활용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재현하는 것의 의미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군사주의는 한국 사회의 젠더정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종종 동원되었다.¹²⁾ 그 중에서 특히 문승숙은 박정희 정권 이후 현대까지 한국에서 인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 수용되는 과정의 젠더를 군사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군부 독재 정권은 국가주도의 근대화 기치 아래에서 병역을 의무화하고 산업 기술 인재 육성과 병역을 관련시키면서 군사주의에 입각한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군사주의 전략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에서 노동자 및 중산층 남성들이 여성들을 배제한 시민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송곳>이 노동운동 과정을 군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병치하여 묘사하면서, 여성 조합원이 대다수인 대형마트 투쟁을 영웅적인 남성 관리자의 투쟁으로 어떻게 전유되는지 문승숙의 논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문승숙은 군사주의가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 논리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활용된 방식을 밝힌 바 있다. 이 방법론은 군부 정권 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전반으로 잠식해 들어온 군사주의가

-
- 9) 조서연, 「페미니즘이 뭐길래」 2회 여군 예능으로 본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심리, 『경향신문』, 2015.12.16. (<http://h2.khan.co.kr/201511251051351>, 2018.4.30. 검색.)
- 10)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청년사, 2005, 211~223면.
- 11) 문승숙, 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2007, 37~102면.
- 12) 김영희 외, 『그런 남자는 없다. 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봄, 2017; 오찬호,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카리스마, 대한민국 남자 분석서』, 동양북스, 2016; 문승숙, 위의 책; 권혁범,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 또하나의문화, 2006; 권인숙, 위의 책 등.

대중문화의 재현에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지 보여줄 것이며, 1970년대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을 2000년대 전까지 노동운동사에서 비가시화 해온 논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여성들을 주체로서 재해석해온 흐름에서 나타난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운동 재현 물들의 맥락에서 <송곳>의 위상을 가늠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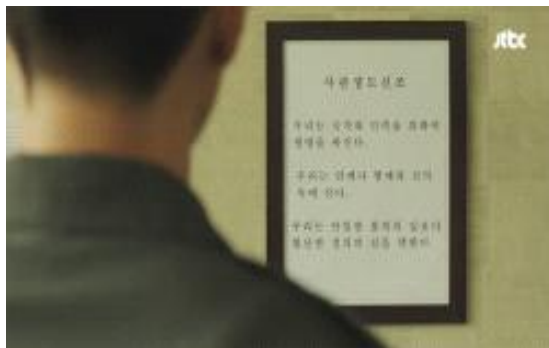
이를 위해 먼저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드라마 <송곳>의 노조 조직자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재현이 군사주의와 결부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를 재현한 다른 영상물과의 비교를 통해 이 안에서 드라마 <송곳>의 위상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군대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노조 조직자의 성격

<송곳>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수인은 앞서 언급한대로 전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경욱을 모델로 했으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경욱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군 간부였던 이수인의 이력은 이 드라마에서 군대 일화를 사용한 비유가 많이 사용되는 배경이다. 중간 관리자인 이수인이 하급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한 쟁의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송곳>은 이수인의 성장과정, 육군사관학교에서의 훈련과정, 군 간부로서의 복무과정을 통해 이수인의 성격을 자세히 제시한다.

<송곳>은 1회와 2회에 걸쳐 이수인의 성장배경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생도, 그리고 육군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개한다. 또한 부모님이 이수인을 훈육한 방식과 그들의 품성을 통해 이수인의 성격이 형성된 배경을 제시한다. 학창시절의 이수인은

힘이 없는 학생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학생들을 징벌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담임교사의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강직한 성격은 육군사관학교와 군복무 시절의 에피소드에서도 나타난다. 이수인이 육군사관학교 생도이던 시절, 훈육관이 특정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자 이수인은 학교 주요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당한 선거개입을 비판한다. 그가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에는 선임의 부정부패를 목인해야하는 상황에 괴로워했다. 이 중에서 육군사관학교 시절과 중대장 근무 시절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 드라마에서 이수인의 성격이 어떻게 군사주의와 맞물려서 제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장면 A>



<장면 B>

<장면 A>는 이수인이 훈육관의 사무실에서 훈육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라는 지시를 들은 후의 장면이다. 카메라는 사무실의 출입문 바로 옆에 걸려있는 ‘사관생도신조’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춘다. 훈육관의 사무실을 나온 이수인은 투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훈육관의 지시를 무시한다. 이후 이수인은 학교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교관들이 다수 모인 동기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한 상부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수인은 투표를 거부하여 훈육관의 지시를 거스르지도 않았고, 동기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여 사관생도로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의 이러한 처신은 어느 것도 사관생도로서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장면 A>는 이수인의 ‘불의’에 저항하는 행동은 그가 사관학교 생도로서 신조를 지키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고, 이 처신이야말로 올바른 사관생도의 자세라는 것을 강조한다.

<장면 B>에서는 이수인이 납품 비리를 승인하라고 명령하는 하급 선임을 거역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납품 비리를 승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수인의 갈등이 나타난다. 카메라에 의해 클로즈업 된 서류에는 이미 ‘보급반란에는 도장이 찍혀져있고, ‘중대장’과 ‘대대장’란은 비어있다. ‘중대장’란 위에 멈춰져있는 이수인의 도장은 그 서류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직의 운영을 위해 승인해야하는 이수인의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도장은 그가 더 이상 사관학교 생도 시절처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의미한다. 서로의 결제라인의 가장 하위 관리자도 아닌 중간 직급의 관리자에 속하는 그는 어느새 원칙을 벗어나는 조직의 관성을 어느 정도 승인해야만 하는 보직을 맡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이 사건 이후에 군대를 그만두고 군대 밖에서 취직하기로 결정한다.

<장면 A>와 <장면 B>는 각각 육관사관학교와 중대장 근무 시절에 발생한 에피소드를 통해 이수인의 강직하고 원칙주의적인 성품을 드러낸다.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성인 이후의 에피소드는 그가 당시에 누리고 있던 이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정직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그의 신조를 결코 굽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수인은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군대 조직과 계속 충돌을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화에서 언급되듯 군대 내에서 업무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표창장과 최우수 소대장상을 받은 바 있다.

군대에서 그에게 부여한 상들은 한편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수인이 어떤 인물인지 잘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는 군대의 원리 자체에 비판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의 원칙을 벗어난 비규범적인 행동들에 비판적이었다. 이수인의 강직해 보이는 행동들은 비

규범적인 행동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그것에 도전하기보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수인은 보수적으로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하는 군대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누구보다 능숙했으며, 상급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군대도 정해진 규정에 잘 따르는 그의 능력을 상으로서 보상해주었다. 군대에서 이수인이 보인 실적은 그가 누구보다 군대문화를 성공적으로 내면화했으며, 사회 제도에 순응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의 노조 가입과 파업을 조직해야겠다는 결심 역시 사측이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가 사측의 지시를 거절할 때 내뱉은 “그거, 불법입니다”(1화)는 그의 노조 가입도 그의 원칙주의적인 성격의 발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곳>에 드러나는 이수인의 또 다른 성격은 그의 ‘평화주의적’ 기질이다. 이수인은 살상을 꺼리고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수인이 정민철 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후, 군 시절에 발생한 사건을 회상하는 에피소드는 이수인의 평화주의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이수인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전방에서 부하들과 보초를 서고 있던 어느 날 발생하였다. 늦은 밤에 이수인의 부대 쪽으로 적으로 추정되는 세 명의 정체불명의 병사들이 접근해왔다. 이수인은 그 병사들을 간첩이라고 간주하고 그들을 사살하여 특진하려는 꿈을 잠시나마 꾸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 세 명은 적이 아니라 이수인의 부대원들이었다. 이수인은 그들을 충분히 사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격하지 못한 후 들었던 생각을 “나는 내가 군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1화)라고 회상한다. 이 에피소드는 이수인의 내면 안에서 적을 쏘아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노동자들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나란히 놓는다. 한국의 해고반대 투쟁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구호인 “해고는 살인이다”¹³⁾라는 익숙한 명제는 이러한 병치를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

는 고리가 된다. 그러나 군사 작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살상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해고는 전혀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다. 군대에서의 살상은 그가 소속된 국가 혹은 그를 고용한 국가의 전쟁 승리 혹은 안보를 목적으로 삼지만, 해고는 회사가 사용자의 계급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국가적 이익과 계급적 이익은 구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수인은 둘을 병치하여 둘의 차이를 뒤섞는다. 이 에피소드에서 이수인은 군대와 기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대신, 이수인은 '살상에 협력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군대에서의 적군 살상과 회사에서의 직원 해고에 동참하지 못하는 '평화주의자'로 그려진다. 이 에피소드는 국가와 기업의 차이를 소거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와 고용관계에 내포된 젠더 역시 소거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문승숙은 징병제를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의 군대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분할하고, 여성들의 시민권을 박탈시켜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시민권을 요구하는 중요한 실천의 하나로 보면서,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1980년대 말부터 남성 노동자들과는 별개로 노동현장의 성차별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역사를 논의하였다.¹⁴⁾ 문승숙의 말처럼, 군대 시스템은 여성을 시민권에서 배제해왔지만, 노동운동은 오히려 여성들이 시민권을 주장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이수인의 근무처인 푸르미는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형마트이고, 실제로 이수인이 조직하는 평조합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상기해볼 때 군대와 노동운동은 상반되는 속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수인의 기억 속의 군대는 남성들만의 공간으로 나타나므로 푸르미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특성을 은폐한다. 푸

13) 이 명제는 여러 노동자들의 해고반대 투쟁에서 구호로 사용되었다. 또한 2009년에 전개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과업을 기록한 책도 이 명제를 인용하여 제목을 『해고는 살인이다』(양돌규·이승원·정경원, 한내, 2010)로 지었다.

14) 문승숙, 앞의 책, 209~225면. 이와 관련해서는 오장미경의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아르케, 2003)도 참고할 만하다.

르미는 관리자는 남성, 하급 노동자는 여성으로 직무가 젠더에 따라 나뉜다. 노동자들의 업무도 남성들은 상품 수송, 여성들은 상품 배치로 젠더에 따라 이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 분할은 사측의 정리해고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 노동자로 만든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푸르미 마트에서 나타난 해고 계획과 노동 쟁의가 미치는 과급력은 젠더에 따라 다르고, 노동 쟁의 과정에서 사측과 노측도 젠더에 따라 분할된다. 하지만 이수인이 이 같은 상황을 남성만이 등장하는 군대 일화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젠더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3장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다.

3. 군대 일화에 비유되어 재현되는 노동자-회사, 노동자-노동자 갈등

<송곳>에서 이수인이 회사와 노동자들의 갈등, 혹은 관리자와 노동자들의 갈등,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군대에서의 일화들과 오버랩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송곳>의 무대인 푸르미는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젠더와 직급에 따라 위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푸르미의 상황은 남성만 존재하는 군대로 설명됨으로서 계급 및 젠더와 관련되어있는 사건의 결들이 평면화 되는 효과를 낳는다.

푸르미에서 노조가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전인 3회에서, 푸르미의 중간 관리자들은 하급 노동자들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 과정을 과도하게 관리한다. 이들은 하급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업무완성도를 강요하고, 그들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중간 관리자들의 폭력과 하급 노동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이수인의

시선으로 관찰되고, 이수인의 내레이션으로 해석된다. 이수인은 중간 관리자들을 이유 없이 이등병을 괴롭히는 고참으로, 하급 관리자들을 선임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겁먹은 표정을 한 갓 전입한 이등병으로 비유하면서 이들의 상황을 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이해한다.



<장면 C>



<장면 D>

<장면 C>는 푸르미 안에서 중간관리자인 김 과장이 그가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를 트집 잡고, 그들의 미숙함을 비난하는 장면이다. <장면 C>와 함께 이수인의 목소리로 “여유로우면서 능숙한 병장 같던 직원들은 갓 전입한 이등병 같은 얼굴이 되었다”라는 내레이션이 흐른다. 이 장면에서 이수인이 군대에서 있었던 경험을 떠올린 것은 중간 관리자들과 하급 노동자들의 표정이 군대에서 보았던 고참과 이등병의 표정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고 위축된 이유는 이등병처럼 낮은 공간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그들의 업무 능력을 비하하고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폭언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면 C>의 노동자들과 <장면 D>의 이등병이 그들의 상관에게 당하는 폭력의 종류도 다르다. 전자는 노동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폭언이었다면, 후자는 이등병의 태도를 문제 삼는 물리적 폭력이었다. 후자는 위계를 확인하기 위한 폭력이고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지만, 전자는 중간 관리자가 생존하기 위한 폭력이며 노동자들

이 퇴사하지 않는 한 이 위계관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장면 C>와 <장면 D>는 인물들의 행동과 표정만 유사할 뿐 이것이 낳는 효과는 매우 다르지만, 두 장면이 이수인의 시각에 의해 등치되면서 군대와 노동현장의 각기 다른 맥락은 와해되어버린다. 이 드라마가 군대에서 나타나는 상하관계에 푸르미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비유한 것은 푸르미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부당함과 노동자들이 느낄 공포와 두려움을 시청자들에게 보다 잘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했을 것이다. 즉, 이 드라마는 시청자 모두가 군대나 군대문화에 익숙하리라고 가정한다. 이는 한국에 만연한 군대문화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갈등 역시 군대에서 이수인이 겪은 에피소드의 비유로서 등장한다. 8회에서는 푸르미에서 노조가 발족되고 노동환경이 개선되자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은 점차 늘어나지만,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다시 조합원들이 줄어든다. 이수인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탈퇴한 이력이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다시 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측의 탄압을 견뎌내며 노조를 지키던 조합원들은 격렬하게 반대한다. 이수인은 그런 조합원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훈련을 떠올린다. 훈련에 참가한 이수인의 동기 생도들은 훈련을 마치고 동료들과 ‘원통블루스’의 3절인 ‘보고 싶은 어머니’ 부분을 함께 부르고 울면서 서로를 껴안고 전우애를 느낀다. 하지만 그 직후에 이어진 야간행군에서 이수인을 제외한 다른 동기 생도들은 핑계를 대며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십 킬로그램의 편제화기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책임감이 강한 이수인만 이것을 운반해야 했다. “합일의 감격은 무력했고 오로지 짐의 무게와 몸의 고통만이 우리를 지배했다”(8회)는 수인의 대사는 동지애가 각자의 이해관계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리는 당시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측의 노조 탄압 앞에서 분열한 노동자들의 상황과 등치된다.

이러한 연출은 군 간부가 되기 위한 사관생도들의 훈련이 노동자들의

생존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조활동과 같은 수준에서 재현되는 효과를 낳는다. 두 사건은 이수인이 인간의 ‘이기심’을 실감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각각의 ‘이기심’이 나타나게 된 동기와 배경은 매우 다르다. 사관생도들의 훈련은 어디까지나 전쟁이라는 실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활동인 ‘훈련’이다. 어떤 생도가 이 훈련에 다른 생도들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여 두각을 나타내거나 혹은 다른 생도들의 성실함에 기대어 비겁하게 훈련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이나 졸업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활동과 그것으로 인한 사측의 공격은 차원이 다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노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노조는 회사와 대립할 수밖에 없고, 푸르미의 사례에서처럼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을 매개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도 한다. 임금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상징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임금은 노동자들 및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송곳>은 계속해서 노조 활동과 이수인이 군대에서 경험한 일들을 유사한 것으로서 제시한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면에서 성공적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이 드라마는 푸르미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푸르미와 군대에서 모두 일한 경력이 있는 이수인의 시각에서 재현했다. 시청자들은 이수인이 푸르미에 입사하기 전에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수인이 푸르미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군대에서 겪었던 일화들에 비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에서 군대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남성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간주되어왔다. 대부분의 한국의 성인 남성들은 군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군대의 일상적인 상황들에 매우 익숙하다. 여성들 역시 남성 가족들이 징집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군대에서의 생활이나 군사 용어들을 친숙하게 느낀다. 징병 경험이 있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남성들이 복무한 부대의 훈련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남성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가 군대에서 복무한 시간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국가와 이웃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버텨낸 시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의미화된다. ‘군대’에 익숙한 한국에서 군대는 예외적 공간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압축해놓은 전형이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기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송곳>은 푸르미에서 발생하는 노조탄압과 노동자간의 갈등에 대한 하급 노동자들과 이수인의 반응을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비유하여 시청자들이 푸르미의 상황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한다.

신시아 인로는 “군사회는 한 사회의 어떤 부분이 군대나 군대의 가치에 의지하거나 지배당할 때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¹⁵⁾ 이러한 인로의 가정에 근거하여 권인숙은 한국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징병당하는 남성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희생한다는 명제에 보편적으로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중 하나는 군부정권에 저항하는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삼은 인터뷰이다. 이 시기의 학생 운동가들은 군대를 활용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유망한 학생 운동가들을 강제 징집하는 군부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징집되어야하는 남성들을 연민하면서 징병제 자체는 암묵적으로 승인했다.¹⁶⁾ 특히 대상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더 주목할 만하다. 남성들의 징병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등치된다면, 징병의 경험은 사회에서 특권을 누릴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징병되지 않았던 사람, 즉 남성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을 차별할 때 가능하다. 사회 구조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징병제 제도와 사회의 군사회에 무비판적인 것에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군

15) Cynthia Enloe, *The Morning After*,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100, 권인숙, 앞의 책, 2005, 28면에서 재인용.

16) 권인숙, 위의 책, 222~223면.

사주의를 읽어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태도는 성차별주의와 장애차별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남성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합리화하는 징병제와 군대경험이 여성들이 하급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형마트에서 노동자와 회사, 혹은 노동자간의 갈등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는 장치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송곳>의 배경이 되는 푸르미는 젠더에 따라 업무가 분할된다. <송곳>에서 하급 관리자부터 점장까지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송 부장을 제외하고 전부 남성이다. 단 한명의 여성인 송 부장조차 노동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푸르미의 이러한 고용구조는 성차별적인 한국의 고용구조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설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송곳>이 성차별적인 고용구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재현한다는 점이다.

<송곳>의 제작진들은 이 드라마의 기획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시시한 약자들을 위한 한줄기 따뜻한 바람을 불어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약자들이 “단합된 힘으로 억압된 사회를 ‘송곳’처럼 뚫어”내려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개인들은 ‘연대’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과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¹⁷⁾ 이 드라마는 단순히 “연약하고 시시한 약자들”의 재현을 넘어서서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을 재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들의 기획의도를 드라마 안에서 충분히 풀어내려고 했다면, 푸르미에서 제일 약자인 여성 하급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연약하고 시시한 약자가 아닌, 학창시절부터 사관학교를 거쳐 중대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준수해나가는 정의롭고

17) <송곳> 홈페이지 기획의도, <http://tv.jtbc.joins.com/songgot>.

강직한 신념을 가진 영웅적 인물 이수인에 초점을 맞춘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이수인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하급 관리자들이나 하급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송곳>에 등장하는 인물군 각각이 보여주는 성격은 이수인의 영웅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4.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의 재현 경향과 <송곳>

<송곳>은 노조 조직 과정에서부터 파업투쟁 진행과 파업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남성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그려낸다. 드라마 안에서도 노조 결성과 파업 투쟁의 목표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이 투쟁의 당사자들은 드라마의 주요 재현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성 노동자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불신하고 갈등을 야기하여 노조를 사수하려는 이수인을 괴롭히는 무지한 존재들일 뿐이다. 이 드라마에서도 노조조직과 파업투쟁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몇몇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이수인과 달리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하며 편협한 시야를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은 단편적으로만 언급될 뿐 이 투쟁의 국면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고 어떤 고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변화는 무엇인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송곳>의 재현방식은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 방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평촌의 언니들>(이춘민 감독, 2009)과 <외박>(김미레 감독, 2010)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다르다.¹⁸⁾ 두 영화는 대형마트

18) 두 영상물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허구물인 <송곳>과 다르지만, 둘 모두 감독의

여성 노동자 투쟁을 그린 대표적인 영상물로, 전자는 이랜드 기업이 운영하는 뉴코아 평촌점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노동자 외주계약 전환 반대 파업 투쟁 과정을 재현하였고, 후자는 역시 같은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같은 기간 동안 지속된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파업 투쟁 과정을 재현하였다. 두 영상물은 모두 초점 인물이 존재하지만, 이 초점 인물만을 중심으로 영화를 구성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파업 투쟁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이 투쟁이 어느 한 사람의 주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 투쟁의 의미는 참여한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투쟁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회사 측이 제시한 교섭안의 수용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서, 교섭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카메라에 담아내어 조합원들을 투쟁을 움직이는 주요한 동력으로서 재현하는 효과도 낳았다.

두 영화는 파업 농성 현장에서, 혹은 사측과의 쟁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석상에서 드러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해방감과 어려움에 대해 말할 때 회사와의 관계 변화나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녀들의 가족을 언급한다. 두 영화는 여성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언급하는 '가족'을 통해 그녀들이 점거한 매장 안에서, 집회 현장에서, 회의석상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아내'와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 제공해야 할 돌봄 및 가사 노동의 의무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족들을 위한 노동은 임금 노동 못지않게 중요한 의무이고, 때로는 임금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의도에 의해 재구성된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분석한 연구도 있는 만큼, (계운경, 「<외박>과 <카트>의 여성노동운동과 공간」, 『현대영화연구』 23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229~256면) 두 영상물의 비교도 가능해보인다.

<외박>은 매장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매장 안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나타난 여성 노동자들의 다양한 발언들을 카메라에 담아내었다. 이 노동자들은 집회에서 가정의 가사노동 및 육아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며 파업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들의 해방감을 발언하고, 회사 관리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기혼 여성들을 비하하는 단어인 ‘아줌마’로 명명하는 것에 문제제기한다.¹⁹⁾ 그녀들의 발언을 통해 파업이 (기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엄마’, ‘아내’, ‘며느리’, ‘기혼여성’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내’ 혹은 ‘엄마’라는 의무는 그녀들이 파업 투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평촌의 언니들>에는 뉴코아 파업 투쟁이 시작되던 초기, 파업에 참여한 평촌 지점의 여성 노동자들이 저녁 시간에 강남점에서 진행되는 매장 점거 투쟁에 누가 결합할지 논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모든 조합원들은 집에서 수행해야 할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 등의 의무를 언급하며 밤에는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이 상황에서 한 조합원이 항상 밤에 근무하던 조합원을 지목하며 결합 가능 여부를 묻자, 그녀는 “일곱 살 아이를 두고 평촌에서 강남까지 밤에 어떻게 와요”라며 강력하게 항의한다. <외박>에서도 매장 출입이 봉쇄된 채 매장 점거 파업이 장기화되자 한 여성 조합원이 ‘외박’에 대한 남편의 불만과 가사노동 의무를 방기하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그녀에게 호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두 다큐멘터리 영화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노동’의 의무가 노동을 거부하는 ‘파업’ 투쟁에도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송곳>은 파업 투쟁과 조합원들의 젠더를 무관한 것으로 그린다. 푸르미 노동조합 일동점은 8화부터 본격적으로 쟁의를 시작하고,

19) 이 장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배상미, 「여성노동자라는 새로운 범주설정의 필요성: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1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4, 104~107면을 참고하라.

11화부터는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의 쟁의에 푸르미 측은 조합원들의 월급을 삭감 및 압류하고, 파업을 그만두면 원직으로 복귀시켜주겠다고 회유한다. 이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던 여성 노동자인 한영실과 김정미도 각각 경제적인 문제로 노조를 그만두려고 시도하거나 그만둔다. <송곳>은 두 사람을 모두 생계부양자로 그려냄으로서 파업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만을 강조한다. <송곳>도 두 영화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대다수는 여성들이지만, 김정미와 한영실을 제외하고 다른 여성 노동자들은 드라마에서 거의 대사가 없기 때문에 투쟁과정에서 이들의 감정들은 알기 어렵다. 침묵하는 여성 노동자상은 이수인을 비롯하여 파업 투쟁에 간부로 참여하는 남성 중간 관리자, 그리고 남성 하급 관리자들을 파업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재현하는 효과를 낳는다. 나아가, 젠더에 따라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다는 것에 침묵함으로서 노동운동과 젠더의 관계도 은폐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 현대사에서 노동운동은 남성들의 시민권 쟁취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었다. 특히 1970년대 어용노조에 맞서 노동자들의 ‘민주노조’를 설립하는 운동에 여성 노동자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²⁰⁾ 노동운동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성취가 비교적 비가시화 되었다는 반성적 성찰이 일어나면서²¹⁾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걸쳐 독립영화²²⁾와 연구서²³⁾를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역사가 재조명되어왔다. 이러한

20)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140~424면.

21) 전희경은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민중가요, 선전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의 강력한 남성중심성을 분석하여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노동운동계는 그들의 문화에 존재하는 남성중심성을 부정하기에 바빴으나,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외부의 비판을 반성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선전물 등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2008, 83~88면)

22) 박유희,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노동자 재현의 지형」, 『여성문화연구』 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01~111면.

성취들은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노동운동을 젠더를 고려한 관점에서 재기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노동운동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위상을 재조명하려는 일련의 작업들 가운데, 2003년 까르푸 투쟁에서 2007년 홈에버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대형 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송곳>은 중대장 출신의 남성 관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노동운동을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사용하여 노동운동을 재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하여 푸르미에서 파업이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인 사측의 무분별한 해고 조치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관리자가 불의와 원리원칙의 손상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려진다.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송곳>의 매체적 성격은 위의 두 독립영화와 다른 방식으로 여성 노동자를 재현하고, 노동운동을 재현하기 위해 군사주의를 동원한 이유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가 노조와 노동운동 억압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노조와 노동운동에 반감을 가진 대중들이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이 주제를 드라마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재현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하고 보수성을 띠는 군대문화는 노동운동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좋은 매개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송곳>이 웹툰 <송곳>과는 달리 푸르미 마트 노동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변인물들의 서사를 생략하고 푸르미에서 발생한 노동운동에 집중한 이유 역시 대중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

23) 유경순 편, 『나, 여성 노동자』 1-2, 그린비, 2011; 유경순, 『아름다운 연대: 들불처럼 타오른 1985년 구로동맹파업』, 메이데이, 2007;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개정판)』, 이매진, 2006;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 한겨레신문사, 2004; 오장미경,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 아르케, 2003;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2, 한울아카데미, 2001; 이옥지, 앞의 책 등이 있다.

로 보인다. 웹툰이 다양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춰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노동운동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드라마는 이수인에 집중하여 노동운동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리원칙이 잘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으로 재현하였다.

<송곳>이 여성 노동자 투쟁을 소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가 아닌 ‘남성’ 관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 역시 노동운동과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전달하려는 하나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송곳>의 배경이 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40~50대의 기혼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20~30대 여성들로 그려지고, 이들은 대부분 전문직이다. ‘여성 노동’을 여성 노동자의 시각에서 재현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주연 급으로 등장하였다고 평가받는 MBC의 <과견의 품격>(2013)이나 tvN의 <미생>(2014)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모두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학력인 사무직 20~30대 여성들로 등장한다. 대중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여성 노동자의 전형과는 다른 대형마트의 여성 노동자상을 활용하여 역시 대중들에게 낯선 소재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이미 <송곳>에서도 조금씩 드러난 것처럼 여성 노동자의 재현은 여성 노동자들의 임노동 및 가사노동의 이중부담과 노동 현장의 성폭력의 재현이 동반되는 만큼, 가부장적 임노동시장 구조 및 가부장적 가족구조 안에서 여성 노동자의 갈등이 보다 전면적으로 재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즉, 계급갈등과 젠더갈등이 모두 재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남성 관리자를 투쟁의 주체로 재현하면, 계급갈등과 젠더 갈등을 모두 피할 수 있다. 남성 관리자의 시선을 통해 노동운동은 불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탈계급적이고 탈젠더적인, 사회의 ‘선’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재현될 수 있다. 상당히 급진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은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대중적인 매체와 만나 보다 ‘대중적’으로

순화된 결과가 바로 <송곳>일 것이다.²⁴⁾ 이러한 <송곳>의 재현방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가가 제정한 ‘밥’이 독점하는 폭력에 반대하지만,²⁵⁾ <송곳>의 파업은 오히려 국가의 ‘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촉구한다. <송곳>은 푸르미에서 발생하는 부당 노동 행위의 원인이 구조적인 계급적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밥’과 ‘규칙’이 부패한 몇몇 이들에 의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재현한다. 이 ‘밥’과 ‘규칙’에는 가부장적 질서도 포함되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직장을 잘 보존하여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송곳>의 노조는 사회 질서에 위협적이지 않다. 대신 사회 질서가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며,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정의한 사람들을 비판한다. <송곳>은 노조를 올바른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직으로 재현하여, 노조와 노동운동이 가진 혁명적인 성격을 제거한다. <송곳>이 노조 조직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의 급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24) <송곳>의 재현전략은 단순히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매체의 속성으로 인하여 채택된 것은 아니다. 드라마 <송곳>의 재현방식은 상당부분 웹툰 <송곳>에서 차용하였다. 웹툰 <송곳>에서도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인물은 남성 노동자들이고, 군사주의 은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최규석은 <송곳>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주로 남성들을 서사의 주동인물로 내세우기 때문에 <송곳>의 서사전략을 최규석의 작품 창작 스타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웹툰 <송곳>의 서사전략이 드라마로 제작되기에 적절했기 때문에 드라마도 제작될 수 있었다. 따라서 <송곳>의 재현전략을 드라마의 매체적 속성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5) 자크 데리다, 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80~81면.

5. 결론

이 논문은 드라마 <송곳>의 재현전략인 군사주의가 노동운동의 재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한국 사회의 젠더정치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종종 등장한 군사주의는 한국에서 시민권의 젠더를 구축하는 주요한 기제였다. 드라마 <송곳>은 200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을 다룬 만큼, 성차별적 시민권을 구축해온 군사주의가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구축하는 방법론으로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측면이었다. 그리하여 <송곳>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군사주의가 활용되는 방식을 중간 관리자로서 하급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운동에 뛰어든 특이한 전력의 노조 조직자를 설명하는 과정과, 노동자들과 사측의 갈등을 군대 일화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이 같은 재현방식은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는 군대와 계급적 이익에 입각하여 발생하는 노동운동의 차이를 뒤섞고, 한국에 만연한 군대 문화를 그대로 승인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된 노동운동은 여성 조합원들이 대부분인 대형 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노동자와 사측 간의 갈등을 군대 일화를 통해 재현하여, 직무의 젠더 분할과 사측이 젠더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문제’로 재현하지 않음으로서 성차별적 노동구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승인하였다. 반면, <송곳>처럼 대형마트 여성 노동자 투쟁을 소재로 다룬 <외박>, <평촌의 언니들>같은 영상 재현물들은 이 투쟁을 노조 위원장이 아닌 여성 평조합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공동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평조합원들의 발언에 주목하여 젠더를 노동과 노동운동 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밝혀내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송곳>이 노조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이나

노조와 노동운동이라는 소재를 다뤘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드라마의 가치를 고평가하였다. <송곳>이 가지는 성취를 인정하더라도, 과거에 불온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겨졌던 활동들이²⁶⁾ 어떤 외피를 쓰고 대중매체에서 재현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노조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집합적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사측이 권력관계와 자본의 논리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관리하는 방식에 저항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송곳>은 하급 여성 노동자들과 계급적 이해 및 투쟁 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중간 관리자를 투쟁 주체로 내세워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재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급 여성 노동자들을 ‘이해관계’ 때문에 노조를 탈퇴하는 것으로 그려내었다.

<송곳>의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노조를 조직하고 쟁의를 진행하는 상황을 군대 일화에 비유하여 그려낸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에 녹아있는 군사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왔고,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특히 노동운동계 내에서는 사측과의 계급투쟁이라는 대의 아래 노동자들의 젠더를 은폐해버리는 남성중심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송곳>의 노동운동 재현 방식은 그동안 노동운동계 안팎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송곳>이 노동운동을 재현한 최초의 드라마로서 군사주의라는 재현전략을 취한 것은 현재 한국의 주류 사회가 승인하는 가치와 승인하지 못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이에 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6) 영화 <파업전야>(장산곶매, 1990)는 대학가와 노조를 중심으로 공동체 상영을 했을 뿐이지만 정부는 그마저도 병력을 동원해 제재할 만큼 노동운동과 파업이라는 소재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정부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시했다. (정인선, 「한일 민족영화와 민주영화의 자주상영 운동: <파업전야>와 <도레미 공장>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23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312~316면 참고)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미례 감독, <외박>, 2010.
이남규·김수진 극본, 김석운 연출, <송곳>, JTBC, 총12회, 2015.10.24~2015.11.29.
이춘민 감독, <평촌의 언니들>, 2009.
최규석, <송곳> 1-5부, 네이버 웹툰, 2013~2017.
<송곳> 홈페이지, <http://tv.jtbc.joins.com/songgot>.

2. 단행본

- 권성현·김순천·진재연 편,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이랜드 노동자 이야기』, 후마니타스, 2008.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청년사, 2005.
문승숙, 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2007.
박수정, 『여자, 노동을 말하다: 우리 시대 여성 노동자 8인의 이야기』, 이학사, 2013.
신시아 인로, 김엘리·오미영 옮김,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지구화, 군사주의, 젠더』, 바다출판사, 2015.
유경순 편, 『나, 여성노동자』 1-2, 그린비, 2011.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 2001.
자크 테리다, 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2008.

3. 논문 및 기타

- 계운경, 「<외박>과 <카트>의 여성노동운동과 공간」, 『현대영화연구』 23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권인숙, 「군사주의 문화의 성별화된 실제와 과제」, 『여성가족생활연구』 8호,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 연구소, 2004.

- 김영숙, 「[인터뷰] 웹툰 <송곳>의 만화가 최규석: 노골리스트 최규석 “주제는 이마에 붙여야”」, 『오마이뉴스』, 2015.07.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1513, 2018.04.30. 검색)
- 김 원, 「<미생>에서 <송곳>으로: 세대 전쟁에서 시간 전쟁으로」, 『실천문학』 120호, 실천문학사, 2015.11.
- 박유희,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노동자 재현의 지형」, 『여성문학연구』 38호, 여성문학학회, 2016.
- 배상미, 「여성노동자라는 새로운 범주설정의 필요성: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1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4.
- 이영미, 「<송곳>, 헬조선에서의 싸움을 대하는 태도」, 『황해문화』 90호, 새얼문화재단, 2016.
- 정인선, 「한일 민족영화와 민주영화의 자주상영 운동: <과업전야>와 <도레미 공장>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23호, 한양대학교 영화연구소, 2016.
- 조서연, 「[페미니즘이 뭐길래] 2회 여군 예능으로 본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심리」, 『경향신문』, 2015.12.16. (<http://h2.khan.co.kr/201511251051351>, 2018.4.30. 검색.)
- 태보라 최민음, 「드라마 <송곳>의 기호학적 분석: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6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Abstract

Representation of Labor Movement and Militarism
: A Television Series, *Songkot*

Bae Sangmi

This article examines how militarism influences the representation of labor activism in the 2015 television series, *Songkot*. Militarism is the basis upon which the sexist division of civil rights in South Korea is constructed, and therefore provides an appropriate methodology to explain gender politics in South Korean society. Even though *Songkot*'s narrative derives from the struggles by real laborers at a South Korean large supermarket in 2003, its structure is solidified through the trope of militarism. This paper analyzes how militarism in *Songkot* appears in the drama through the focalization of a labor union organizer who previously served as a platoon commander in the military, including the description of conflicts among workers or between workers and management through anecdotes coming from the organizer's service period. As a result, this method of portrayal enables the elision of differences between the military, which protects national interests, and the labor movement, which defends class interests, and affirms the pervasive military culture in South Korea. Whereas other recent works of visual media which treat similar struggles to those featured in *Songkot* represent women workers as equal and active subjects in the fight with the company, and articulate the centrality of gender to the labor movement, I suggest that the representational strategy of *Songkot* can be considered a backlash or reaction to such progressive reflections on the sexist division of labor and South Korean labor movement.

Key word: Labor Movement, Large Supermarket, Militarism, *Songkot*, Woman Worker

접수일: 2018년 4월 30일

심사기간: 2018년 5월 12일 - 5월 27일

게재결정: 2018년 6월 15일